

막무가내 불법 주·정차, 광주 이미지 먹칠

교차로 막고 버스정류장에도 버젓이... 교통혼잡·사고 우려 시민의식 실종에 불법 주·정차 연계 사고 전국 1위 '불명예'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최고 인기 종목인 하이드리빙 경기를 앞두고 잘 정돈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학교 후문 인근 일방통행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었다. 길이 좁은 탓에 통행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가 학생들을 스치듯 지나가는 등 사고 우려가 높았다.

동구 장동 교차로에서도 아찔한 모습이 보였다. 전남여고에서 광주지방법원 방면으로 가기 위해 1·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갑자기 도로가 1개 차선으로 좁아지자 뒤엉킨 것이다. 제때 끼어 들지 못한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막고 있

어 교통체증까지 빚어졌다. 광주시 동구 남동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한석(39·가명)씨도 지난달 25일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분통 터지는 경험을 했다.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대가 정류장 앞 도로에 버젓이 정차를 한 것이다. 김씨는 "버스정류장에 불법 정차 차량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인도에서 저상버스에 오르기 불가능하다"며 "날마다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무관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가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자동차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전세계 방문객들이 광주를 찾고 있지만 경기장 주변

을 비롯한 광주 곳곳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을 겪으면서 안전과 대회 성공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손해보험사 사고 기록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광주시가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54대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은 38대다.

주민등록인구 10만명 당 사고율도 광주가 전국 평균(15명)의 두배가 넘는 32명으로 전국 1위였다. 기초자치단체(226곳)별 인명피해는 광주시 동구(52명)가 강진군(66명)에 이어 2번째였다.

읍·면·동단위에서는 서구 치평동이 인명피해(32명) 전국 3위, 물적피해(210대) 전국 6위였다.

이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험 접수 전 합의한 사

건을 비롯해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도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시내 곳곳에서는 단속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6년 58만8355건, 2017년 52만9133건, 2018년 57만1798건 등 매년 50만건 이상으로, 적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박희경 광주시 교통정책과 불법 주정차 담당은 "단속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 확대,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교회·학교 연계 나눔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자 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출국 정지

무안공항서 출국 제지 당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씨가 이날 오전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긴급출국정지로 귀국이 무산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

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A씨는 전남 남부대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법촬영(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을 받는다. 특히 A씨는 스트레칭하는 뉴질랜드 선수들의 신체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찍는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뉴질랜드 선수의 가족이 보안요원에게 알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관중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인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을 제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재 취약 남구청사 옥외 피난계단 설치키로

별관동 연결통로도 추진

광주시 남구가 화재에 취약한 남구종합청사 개선에 나선다.

남구는 "청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을 비롯한 직원 등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청사 외벽에 옥외 피난계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남구청사에는 소방법에 따라 실내 비상계단과 완강기 등 피난대피 시설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 비상계단은 연기로 가득차 사물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완강기를 통한 수송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남구는 특별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청사 외벽에 지상 1층부터 9층까지 연결하는 옥외 피난계단과 청사와 별관동을 잇는 연결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재단대비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내일까지 무더위... 18일부터 다시 장맛비

해안·계곡 휴가객 안전 유의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에 달하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다 목요일인 18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15일 예보했다.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 내륙 등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16일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전남

27~32도, 17일 낮 최고기온은 광주 29도·전남 26~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서 17~19일은 1.0~2.5m로 약간 높겠고, 그 밖의 날은 1.0~2.0m가 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장맛비가 내리는 위치와 강수량이 유동적일 것"이라며 "해안가나 계곡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휴가객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 고교생이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후 화장품가게 돌진

광주북부경찰은 15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박모(16)군과 이를 방조한 김모(16)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사거리에서 임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중 1차선으로 선배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임동오거리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북성중학교에서 서림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벤츠차량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았다. 박군은 추돌 여파로 우측에 있는 화장품가게로 돌진했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 오전시간대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백도 해역 불법조업 6명 적발

여수해경은 15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 해역에서 조업을 한 낚시배 선장 A(51)씨와 낚시꾼 B(55)씨 등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상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거문도항에서 출항한 후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했고 B씨 등은 해당 장소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승 등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미세먼지 측정해 볼까요?" 15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값을 확인하고 있다. 북구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북구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0여 곳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빌려준 돈의 2배 챙기고 주점 운영권 강탈 시도까지

광주서부경찰, 조폭 사채업자 2명 구속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아내고 가게 운영권까지 빼앗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5일 빌려준 돈의 2배 이상을 받아내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찾아가 폭행을 일삼은 이모(36)씨와 노모

(38)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1일부터 6개월간 피해자 A(34)씨 등 3명에게서 5000여 만원을 빌려주고 연 120%의 고 이율을 적용해 1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고리대금업자이자 조직폭력원인 이씨 등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영업을 하며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돈을 빌려줬다.

이씨는 A씨가 이자를 내지 못하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해 주점 운영권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책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부 장관 4개 단체(태양광·전력·전선·제약)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시남에 예산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3조원) 추진 가력함에 공동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